

「원왕생가」의 ‘念丁’에 대하여

김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필자로 하여금 감히 향가 해독의 대열에 참여할 엄두를 낼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의 하나가 「원왕생가」였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각별한 감명을 느끼며 회상케 되는 노래다. 향가에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우선 그 본문과 해독, 그리고 현대어역을 차례로 제시하겠다. (줄지 『향가해독법연구』 1980.을 참조.)

본 문 :

- 月下伊底亦
- 西方念丁去賜里遣
- 無量壽佛前乃
- 惱叱古音 鄉言云
報言也 多可支白遣賜立
-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 兩手集刀花乎白良

7. 願往生願往生
8. 慕人有如白遣賜立
9. 阿邪 此身遺也置遣
10. 四十八大願成遣賜去

해 독 :

1. 드라리 엇데역
2. 西方^ㅅ장 가시리고.
3. 無量壽佛前의
4. 곶곰 함죽 숲고쇼셔.
5. 다담 기프신 므르웃 브라 올위러,
6. 두 손 모도 고조슬바
7. 願往生願往生
8. 그리리 잇다 숲고쇼셔.
9. 아야 이 모마 기터 두고
10. 四十八大願 일고실가.

현대어 역 :

1. 달이 어째서
2. 西方까지 가시겠습니까.
3. 無量壽佛前에
4. 報告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5. 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6. 두 손 곧추 모아
7. 願往生願往生

8.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9.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10. 四十八大願 이루실까.

선배들의 해독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가를 다 보일 수는 없지만, 小倉進平과 梁柱東 두 분의 해독을 나란히 보이는 것만으로도 대강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小倉進平 :

돌헛 민예
西方으로 가샤리고
無量壽佛앞에
눕웃기이다가 숲고샤셔
셈 깃산 尊에 올위
두 손(을) 모도와숲아
願往生願往生(이라고)
그릴 사람(이) 잇다 숲고샤셔
阿邪 이몸(은) 그냥 두고
四十八大願을 닐우고샤과라

梁柱東 :

돌하 이데
西方서장 가샤리고
無量壽佛前에
닐곰다가 숲고샤셔

다담 기프산 尊어히 올위러

두손 모도호슬바

願往生願往生

그릴사름 잇다 숲고샤셔

아으 이몸 기터 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살까

필자의 해독의 특징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첫줄에서의 ‘드라리’와 ‘엇데역’, 넷째줄에서의 ‘궂곰’, 다섯째줄에서의 ‘므르웃’과 ‘브라올위러’, 여섯째줄에서의 ‘모도 고조슬바’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

그런데 지금 이 작은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양주동 선생을 따라 ‘西方ㄷ장’이라고 읽어 두었던 둘째줄의 ‘西方念丁’의 ‘念丁’에 관한 것인데, 이미 1980년 당시 필자의 머릿속에는 그와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달리 읽은 터에다가 이것은 전편의 뜻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하자면 잠시 덮어 두고 후일을 기한다는 뜻에서 유보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 나름의 생각이 아직 충분한 예증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뒤 획기적인 논거를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되풀이해서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였고, 또한 소박하고 간단한 생각이지만, 그대로 묻어 두기에는 아까운 생각도 들어 이런 기회에 거론해 보는 것이다.

2.

‘西方念丁’의 ‘念丁’을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 왔을까. 1980년의 저서 말미에 부록으로 붙인 ‘諸家の 鄉歌解讀’에서 거명했던 분들 것을 먼저 나열해 보자.

1) ‘드라리’를 ‘들’의 고행 ‘드랄’의 주격형이라 했었으나, 뒤에 그것을 ‘들’과 축소접미사 ‘아리’의 결합일 것으로 견해를 수정한 바 있다.

- 小倉進平： 西方으로
 梁柱東： 西方ㅅ장
 池憲英： 西方ㅅ장
 金善琪： 서방 가댕
 徐在克： 西方 슷덩
 金俊榮： 西方 넘더

당시의 필자의 안목으로는 너무 소략하고 이질적이어서 이 부록에서 제외되었던 이탁 선생의 견해를 추가한다.(『國語學論攷』, 1958:232-233)

李 鐸： 西方 더더

(표면의 ‘더더’와는 별도로 233면에는 ‘더더’의 別解(?)가 있음에 유의한다.)

당시의 사정으로 필자가 참조하지 못했던 이북의 두 학자의 견해는 이러하다.

- 홍기문： 서방(西方) 녀러
 정렬모： 서방너메

다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두 견해를 첨가하면 다음과 같다.

- 兪昌均： 西方 외오더
 姜吉云： 갈다히(=서쪽) 스저(>스쳐)

小倉進平의 ‘으로’는 의견상 가장 우원한 형태로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으로’를 의도했다면 ‘溜’나 ‘乙溜’ 같은 것이 제격이겠기에 그의 해독은 ‘으로’에 가까운 의미의 어떤 형태의 대체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자신 ‘念丁’은 ‘난해한 말’이라고 전제했던 것이다.

‘念丁’과 관련해서 그의 큰 공로는 이 말이 淨兜寺造塔記 안에도 쓰인 이 두라는 것을 지적한 점에 있다. 원왕생가의 ‘念丁’을 해독 또는 해석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이 이두문에서의 용례를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닌다.

同年春秋冬念丁今冬石練已畢爲白旆

‘春秋冬을 거처’ 등으로 해석될 것이라 하고 있다.

양주동 선생이 시작한 ‘ㄷ’은 ‘念丁’의 표기에 충실하려 한 ‘으’로에 대한 안타테제였고, 지현영, 김선기에 이어 필자도 거기 몸담았던 ‘해독’이지만, ‘생각 념’을 ‘걱정’으로 대체시킨 것은 의미와 음상 양면에 걸쳐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글자를 완전히 음독하려 한 것이 김준영의 ‘념더’인데 그 자체로서는 완벽하나 그것을 ‘념어’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가 걱정이다. 이북의 두 학자의 견해는 어떠했을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나, 필경은 김준영계의 음독을 바탕으로 하며 ‘너러’ 또는 ‘너메’라고 있는 것들이었다. 많은 고심의 흔적은 역역하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서재극에서 강길운으로 이어지는 ‘숫덩~스저’도 재미있는 착상이었다. 그러나 음운상으로 ‘ㄷ’과 ‘ㅈ’의 차이를 적어도 필자로서는 간과하기 어렵고, 또 의미상으로도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요,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창균의 ‘외오더’는 눈이 핵 트일만한 방향 전환이었다. ‘念’이 ‘생각’이나 ‘생각하다’에 그치지 않고 ‘외우다’의 뜻이 있음을 깨우치며(念佛의 ‘念’ 같은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念丁’을 ‘西方’에 붙는 조사라는 통념을 탈피하며 ‘西方’을 목적으로 지배하는 동사로 탈바꿈시킨 것은 감탄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조타기의 ‘念丁’은 방치하고 여기서만 ‘외오더’라고 읽

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바로 위에서 ‘이 두 表記에 나타난 形態가 똑같고 문맥상에서 파악되는 의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일인지 모른다.’(『鄉歌批解』 654면)라고 말한 다음에 ‘외오더’라는 방향이 다른 견해가 이어지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3.

이탁 선생의 글은 매우 죄송스런 표현이지만 몇사람이나 그 논리를 따라 읽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필자의 책의 부록에서도 그분의 해독은 경이원지해서 수록하지 않았었다. 훨씬 뒤에 필자의 창의라고 우쭐했던 ‘于’의 독법 ‘가’가 그분의 책에 있는 것을 보고 낯을 들 수가 없었다. 그 사죄를 겸하여 ‘念丁’의 새 화두는 그분의 글의 인용으로 시작할까 한다.

그분의 『鄉歌新解讀』(앞에 든 저서에 들어 있음.) 233면에는 원왕생가에 대한 略註 2항이 실려 있는데, 그 첫째가 ‘念丁’에 관한 것이다.

1. 念=홉 ‘덤’의 略借 ‘더’. 丁=홉 “든”의 略借 “드”, 念丁=“거쳐”의 前次語 “더더”의 借記(괄호 안에 석탑기 내용을 인용)

이렇게 적으면서도 왜 ‘念’이 ‘덤’이고 ‘丁’이 ‘든’인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민망스럽지만, ‘念丁’이 ‘더더’의 借記라고 하신 것만을 빌려오고 싶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이기는 하지만, 필자 자신이 이 ‘念丁’을 ‘더더’라고 읽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이다.

필자에게 있어서 ‘더더’는 하나의 조사인데, 그 표기에 있어 念(턴)에 丁(더)가 결합되어 이른바 훈주음종을 이룩한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다. ‘念’의 일반적인 뜻은 물론 ‘생각’이지만, 불교에서는 극히 짧은 시간을 ‘念’이라 한

다. 향가에도 ‘一念惡中’의 용례가 있지만, ‘一念中有九十剎那’와 같은 표현에서 그것이 시간어임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필자는 거기에 ‘덜’(지금 우리가 향용하는 ‘어느덧’의 ‘덜’)을 대입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더더’(念丁)에 해당하는 존재가 한글 문헌의 시대에는 찾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낙담만 할 것은 아니다. 제주도 방언에 이 ‘더더’를 방불케하는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트레 간다.

알레레 간다.

라는 한 쌍의 표현을 보자. 제주시에서 이런 말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남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간다’를 뜻하는가 하면 반대로 서귀포 쪽에서 이 표현들을 쓰면 ‘북쪽으로 간다’와 ‘남쪽으로 간다’가 된다고 한다. 한라산이 한복판에 솟아 있는 제주도의 특수한 지형을 고려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용법이다.

여기 ‘우트레’와 ‘알레레’에서 ‘드레’와 ‘레레’라는 한쌍의 이행태를 얻게 되는데(‘우트레’는 ‘웅’와 ‘드레’로 분석), 이것들은 우선 2음절이며 음상이 ‘더더’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와 근사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알레레’의 ‘레레’가 ‘ㄷ’ 아닌 ‘ㄹ’로 시작하는 것은 예컨대 ‘뉘다~뉘다’의 교체 조건과도 흡사한 데가 있다. ‘더더’의 둘째 음절 ‘더’에 대응되는 음절은 ‘우트레’, ‘알레레’ 모두가 ‘ㄹ’로 시작된다. 어느 단계에서 모음간의 ‘ㄷ’이 ‘ㄹ’로 변했다 할 것이다. ‘보리’(菩提), ‘도량’(道場), ‘차례’(次第), ‘모란’(牧丹), ‘거란’(契丹) 같은 예를 통해서 ‘ㄷ’이 ‘ㄹ’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레’의 첫소리도 이 범주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다.(모음간의 모든 ‘ㄷ’이 ‘ㄹ’로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조건은 아직 미상)

흥기문도 이 현상에 주목한 바 있었으나,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丁’을 ‘ㄹ’로 읽어 소기의 ‘녀리’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念丁’은 어디까지나 ‘더더’ 그 자체, 현대의 제주 방언의 특정 형태까지

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현상을 고려에 넣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 「조답기」에서의 ‘念丁’은 ‘방향’이 아닌 ‘경유’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다는 점이 그것이다. 간단히 단정하는 것은 성급할지 모르지만, 영어의 전치사 ‘through’가 ‘경유’와 ‘도달’을 함께 의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용법의 폭이 ‘念丁’에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念丁’과 같은 작은 과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학문이란 작은 차이를 가지고 다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의견상 차이가 나는 견해의 경합이 실은 하나가 되어 밀고 나아가는 측면도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異見은 다 소중하다 할 수 있다. 혹은 小倉進平의 ‘오로’의 경우처럼, 그 외형을 따를 수는 없으면서, 대체를 옳게 지시한 공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며, 이탁 선생의 ‘더더’의 경우처럼 따르지 않으면서 따를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다.